

데스크 시각



김지을
사회부장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조선 중종 2년(1507년·문과)에 시행된 책문(策問)은 이런 주제였다.

책문은 조선시대 고급 공무원 선발 시험인 대과의 마지막 관문. 왕이 국가 비전, 정치 현안이나 현실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젊은 인재들이 고민해서 내놓은 대책을 평가하는 종합시험이었다.

젊은 선비는 이렇게 답했다. “쉬울 때 어려움을 생각 하며 작은 일에서 시작해 큰 일을 이뤄야 합니다. 시작 할 때는마침 때를 생각하고 시작을잘했으면 끝마무리 도 잘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 이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의 신화와 백성이 행복해질 것이고 오래도록 나라가 잘 다스려져 편안해질 것입니 다.”(책문, 이 시대가 묻는다·김태완)

“형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출범한 지 3주 된 이재명 정부의 파격·감쪽 행보와 발 언이 연일 화제다. 취임 당일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방호 직원을 찾았고 입주일 뒤인 지난 11일에는 대북방 송 송출 중단을 지시했다. 23일에는 민주노동 위원장 출신 현직 기관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인 공지능(AI)·정보통신(IT) 분야 전문 기업인을 과학기

은펜칼럼



한 국 환
경영학 박사

오늘 6월 25일은 ‘6.25 전쟁 75주년’의 날이다. 이 전쟁은 동족상잔으로 전 국토가 파괴되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으나 그 후 우리는 정부·기업, 그리고 은 국민이 합심하여 4년 전 마침내 선진국으로 인정받 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과제를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국내 정치권은 3년 전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여소야 대 정국에서 첨예한 정쟁이 지속되다 지난해 비상계 엄, 올해 대통령 파면과 대선을 치른 아주 혼란한 시국 이었다. 하지만 경제(2024년 기준)에서는 GDP 1조 7903억 달러로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6624 달러(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6위)로 일본을 제쳤 으며 4만 달러 달성도 수년 내에 가능하다는 전망이 다. 하지만 실제적 국내 경기는 올해도 침체 상황이다. 대표적 내수 업종(숙박·음식점)의 폐업이 속출하고 금 융 대출도 90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기업의 경쟁력 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인 국가경쟁력은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7위로 하락하는 위기의 국면이다.

기 고



박 성 우
전 광주일보 교사

선거 출마자들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하여 능력껏은 물론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관 계된 사람들은 죽을 등 살 등 있는 힘을 다해 지원한 다. 출마자 중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 거 기간 내내 후보자보다 더 큰 관심으로 있는 힘을 다 하여 지원한다.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선거다. 이 기는 사람 쪽이나 지는 사람 편이거나 끝나고 나면 기 진패진이 되는가 보다. 이기는 사람은 그 때부터 꽃길 을 걷고 외모부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선된 사 람은 환희의 절정에 이른가 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

슬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지만 위낙 영광이 었던 전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지 “TV 뉴스 보는 재미가 난다”는 반응이 나온다.

“돈 없어서 (빚물받이) 관리 못한다는 지자체, 빨리 신고하라고 해라”, “그런데도, 관리 엉터리로 해 수재 발생하면 문책을 아주 세게 하겠다”는 발언(12일·서울 홍수통제소)이나 “편하게 하세요. 형이다 이렇게 생각 하고…”(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현장감담 회) 등의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굳이 보태고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형이다 생각하 고 편하게’ 지역민들 바람을 전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정치’에는 공약을 끝까지 지키는 정치가 우선 일 것이라는 생각에세다.

우선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한 다’는 취임사처럼 남은 임기동안 균형발전을 적극 실 천, 소멸 위험의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게 지역민들 요 청이다.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집중도 는 갈수록 더하다. 지난해 일지리를 찾아 광주를 떠난 인구의 73.6%가 청년층(20~30대)이다. 전남 16개의 시·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험 대상에 올라있다. 공허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한 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불균형발전의 피해지역 이 된 호남을 제대로 발전시켜야합니다’(4월 24일 이 재명 페이스북)는 공약의 실천을 기다리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의 마표표가 될 정책들, 국 가AI데이터센터에 국가AI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하고 세계 최대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전남· 북 일대에 RE100(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산단을 조성하

는 등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SNS에 쓴 글이 언제쯤 지켜질 지 주목하고 있다. 고흥 ~광주·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폐가시티 고속도로 지원, 순천·신안·여수·해남·완도를 대표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현실화되길 바라고 있다.

했던 말 입증해야 할 시간

12살 이하 소아 예방접종 할 데가 없어 차를 타고 몇 시간 걸리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현실을 30년 간 참아온 지역민들의 ‘국립 의대’ 설립 목소리도 새겨들 길 희망한다. 지역민들은 ‘아플 때 누구도 걱정없는 나 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4월 22일 이재명 페이스북),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 역지자체인 전남에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 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습니다’고 한 약속을 기 억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나 라를 만들겠습니다’(5월 20일 페이스북)는 외침도 구 체화되길 기다리고 있다. 영암대불산단에서만 올 들어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산 업재해자(1만6075명) 중 245명이 일터에서 귀가하지 못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조 선 협력 방안이 거론되며 호황기를 맞이했음에도 열악 한 처우와 ‘위험의 외주화’ 등으로 조선해운업의 산재 피해자가 잇따르는 현실이다.

대통령의 말은 무게와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로 크다. 대통령이 밝힌 광주·전남 세부 지역 공약이 중 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권한 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 다. 지금부터 했던 말을 입증해야 하는 시간이다.

6.25 폐허에서 K-이니셔티브 강국으로

결국 한국은행(금융위)은 지난 5월 29일에 경기 부 양(소비 투자의 촉진)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연 2.50%로 지난해 10월 이후 네 번째로 인하 했다. 또한 국내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올해 1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한국개발 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내 경제가 마이너스(-)나 0%대 성장을 보인 것은 외환위기(-4.9%), 글로벌 금융위기(0.8%), 코로나 팬데믹(-0.7%) 등 세 번 뿐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제1 교역국 중국은 지난 10년간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로 ‘제조업 굴기’에 성공하여 스마 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자동차, 컴퓨터 관련기기, 드론 핵심부품 등 세계 주요 수출품을 많이 잠식했다. 이뿐 만 아니라 올 4월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 라톤대회를 개최하며 ‘AI 기술활용’으로 전 세계를 놀 라게 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 배터리 시장은 국내 배 터리 3사가 세계 53%를 선점했으며 올해는 40.3%로, 42%인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다.

사실 지난해 우리 수출액은 역대 최고(6838억 달 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로 올 5월 대미 수 출이 8.1% 급감하여 지난달 대미 수출액도 62억 달러 로 4.4% 감소했고, 6월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냉장 고·세탁기에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돼 국내 업 체들이 초진장이다. 더군다나 3년 지속되는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 G2 미·중의 갈등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며 국내 경제 침체 속에 세 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역대 대선에서 최다 득표 (1728만)로 국민 선택을 받은 만큼 그 기대와 책무를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새 정부는 먼저 보수·진보 양국으로 갈라진 민 심을 통합할 해법을 제시하고 ‘경제 회복 및 민생 안 정’에 방점을 뒀야 한다. 그리고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 격 안정책, 세계의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출생 률의 대책, 청년 취업과 결혼, 산업재해 예방과 국민연 금 등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또 외교·통상에 서는 남북관계 개선,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 협력과 한 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 외교를 펼쳐 야 할 것이다.

정치는 정책의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권교체는 리더 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행위여야 한 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나라는 그대로’라는 냉소연 제시한 정책 실천력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으니 이젠 더 높은 단계의 국가로 도약할 역사적 소명이 있다. 리 더는 그동안 풀지 못한 현안(懸案)에 대한 ‘문제해결 력’으로 그의 자질과 리더십을 평가받는다. 특히 K·팝 과 K·콘텐츠를 비롯 K·푸드와 K·뷰티 등 K-컬처로 통칭되는 한국 대중 문화를 다양하고 폭넓게 알리며 체 환 기회를 제공하여 ‘K-이니셔티브’의 강국으로 글로 벌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모 두 새 정부의 역량에 달려있다.

당선과 수상, 그 이후의 여정

우리를 주변의 모든 경연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기 위 한 노력도 대단하다. 요즘은 각종 오디션에서부터 공 모전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동원하여 최고상을 기대하며 질주한다. 최고상을 받으면 그 때부터 이전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등장한다. 그래서 최고상을 받기 위한 무한경쟁은 계속되는가 보다. 나 스스로도 도전 했던 경험으로 보면 참 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과 정이다.

지금은 뜨거웠던 각종 선거가 끝나고 나라 안팎이 조 금은 조용하다.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은 출마한 사람 중에서 뽑힌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다. 출마자 들 중에서 정말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여 마음에 딱 드 는 경우가 있기는 할까. 나도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 는데 어찌 후보자들 중에서 딱히 자기 마음에 꼭드는 사람이 있겠는가. 출마한 사람중에서만 선택하는 것이 선거의 한계다.

각종 공모전에서 흔히 심사 후 공정성이 시중에 많이 회자되고 공론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이 다. 그러기에 더 공정한 판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너 무 큰 기대일지는 모르나 ‘심사위원들이 출품자가 어 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최고상 수상자 로 뽑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해 본다.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은 자신의 영달에만 급급하지 않고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공복의 자세로 끝나는 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 까. 모든 당선자는 그런 사람이기를 기대한다. 많은 최 고상을 받은 수상자들도 뽑혔을 때보다 더 훌륭한 재능 을 길러서 그 명성에 어울리게 제대로 평가 받고 그 결 과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는 데 공헌하는 경우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는 과연 실현되지 않 을 영원한 숙제로만 남게 될까?

이야기를 하다보니 스스로를 되돌아 보게 된다. 공 모전에 출품하여 작가 대열에 처음 들어 섰을 때 스승 께서 당부하셨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심도 있 게 공부하십시오.” 스승께서는 저 하늘에서 나의 게으 름을 지켜보고 계시 겠다. 많이 부끄럽다.

社 說

추경 확보로 지역 민생·현안 사업 탄력 기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 광주·전남 현안 사업들이 다수 반영 됐다. 반영액 규모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 았지만 내용면에서 더 고무적이다. 광주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된 모빌리티 AX실증랩 조사와 도시 철도 2호선 등 5개 사업에 786억원, 전남은 호남고속철도 예산 등 15건에 6025억 원이 반영됐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광주 도시철도 2호 선 관련 예산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 텍) 운영 출연금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늘어난 공사비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고되면 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았는데 정 부 추경에 715억원이 반영돼 그나마 숨통 이 트이게 됐다.

켄텍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출연금 이 줄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 는데 이번에 100억원이 반영돼 정상화가 기대된다. 개교 당시부터 정부가 전력산 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매년 250억원을 지 원하기로 했던 것을 윤 정부 출범 이후 보

수세력들이 ‘문재인 공대’라고 부르며 지 난해 200억원, 올해 100억원을 줄여 파행 이 우려됐었다.

광주시도 올해 첫 추경으로 4807억원 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는데 65%인 3138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조 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시의원들이 비판 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무 작정 비판할 일은 못 된다. 지방채 발행액 의 69%인 2155억원은 3%대인 고급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쓰기 위 한 것이고 나머지 순수 지방채 983억원도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 454억원 등 시민 들의 생활과 직결된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역할은 잠재된 경기를 살리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시에 투입 하는 데 있다. 재정정책이 필요한 이유인 데 당장 빚을 낸다는 이유로 대안 없이 비 판만 해선 안된다. 정부와 광주시의 추경 이 지역 민생과 현안 사업을 살리는 데 있 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가 능하면 신속하게 집행하길 바란다.

제주항공 참사 ‘뒷북 조사’ 지원만큼은 신속히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 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역 여행업 계를 고사직전으로 몰아갔다. 코로나19 이후 막 살아난 여행 수요가 예기치 않은 참사로 인해 완전히 끊기면서 지금까지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겨울 방학철을 맞아 전세기를 준비한 여행사도 많았는데 제주항공 참사로 인 해 올해 1~2월 사이에만 2만700여건의 예약이 취소돼 피해액만 300억원에 달했 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피해 지원에 나섰지 만 코로나19 시기 대출받은 원금 상황을 1년 유예해준다거나 홍보 마케팅 물품을 제공하는 데 그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 했다. 참다 못해 폐쇄된 무안공항 대신 광 주공항에서 한시적이라도 국제선을 취항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용역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행업계를 달래기엔 미흡해 보인 다. 30일 시행 예정인 제주항공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역 착수인 데 ‘뒷북 조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게다가 용역 결과도 6개월 후어나 나올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뒤에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니 화가 날 만 하다.

모든 보상은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 한 후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탄핵 정 국에 따른 권력 공백기로 인해 뒷북 조사 가 이뤄졌을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새 정 부가 출범한 만큼 이재부러라도 용역에 속도를 높여 고사직전인 여행업계가 숨통 을 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체에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투 명한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 한 합당한 처벌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수국은 쌍떡잎식물 장미목 범의귀과의 낙엽관목이다. 수국의 한자 이름은 ‘수구 화(繡綉花)’로 비단으로 수를 놓은 것 같 은 둥근 꽃이란 의미를 지녔다. 중국어 ‘수 구(繡綉)’ 또는 ‘수국(水菊)’에서 유래된 것 같다. 물 수(水)와 국화 국(菊)으로 이 름 대조하면 물을 좋아하는 국화이다.

수국의 원산지는 일본이지만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비롯해 중국, 히말라야, 아메 리카 등 지구 북반구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종류도 다양한데 크게 분류하면 미국에서 들여온 외래종

러 색깔의 꽃이 피기도 해 ‘칠면화’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한데 수국은 작은 꽃의 ‘참꽃’과 아주 큰 ‘헛꽃’이 동시에 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보통 수국의 꽃이라고 알 고 있는 커다란 꽃(은)은 실제 꽃이 아니 고 꽃받침이 변형된 것이다. 중앙부의 작 은 구슬 같은 것이 진짜 꽃으로 이 작은 꽃으로는 벌과 나비나 곤충을 유인하기 어려워 꽃받침이 크고 화려하게 진화한 것이라고 한다. 꽃받침 안을 찬찬히 들여

다보면 그 속에 작은 꽃

여름꽃 수국

이 달려있고, 그곳에 꽃 잎과 꽃술이 숨어있다. 향기가 거의 없는 수 나 놀이터에 조성수로 심어진 목수국 3종

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여름을 대표하는 나무답게 꽃피는 시기 가 초여름의 장마철과 겹친다. 6월 중순 게 가지 끝에서 둥근 모양, 꽃차례를 이루 이 꽃이 핀다. 땅의 성질에 따라 꽃 색이 달라져 모양의 산도가 중성이면 흰색, 산 성이면 청색, 알칼리성이면 분홍색이나 붉은빛을 띤다. ‘살아있는 리트머스 시험 지’로 불리는 이유다. 한 나무여도 뿌리가 뻗은 방향이 다르면 하나의 줄기에서 여

국을 두고 작은 나무라며 알보는 사람도 있지만 생존을 위한 은밀한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름날 다위를 식혀 줄 만큼 시원스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다.

장마와 함께 시작된 여름, 강진과 해남

여수를 비롯해 전남 곳곳에서 형형색색

수국 꽃을 주제로 축제가 한창이다. 가까

운 곳을 찾아 수국을 보며 힐링하는 시간

을 가져보자.

/김대성 전남 시·중부 전북 취재부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FAX 222-0195〉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